

55만㎡ 규모 진도항 배후지 개발 착공

432억원 들여 2017년 완공
서남해안 물류 거점항 조성
수산물 유통·복합 휴양
신재생 에너지단지 들어서



진도군과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들이 최근 진도항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을 갖고 있다. 진도군은 사업비 432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진도항 일원을 서남해안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항으로 조성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항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진도군은 최근 임회면 진도항(평목 공용주차장)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2017년 12월말 완공 예정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과 서남해안 일대 55만7799㎡를 서남해안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항으로 조성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282억원 등 총 432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도항 권역 미래발전 및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총 3579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진도항 개발사업을 통해 수산물 가공·유통 단지(6만5184㎡)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단지(6만600㎡) ▲상업시설(2만922㎡) ▲신규 주거시설(2만8053㎡) ▲복합 휴양시설(2만6510㎡) ▲숙박시설(1만2418㎡) 등이 조성된다. 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도 만들어진다.

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산업·휴양문화, 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춘 서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는 물론 동북아 국제협력 증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하나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진도군은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등 각종 용역을 거쳐 기술심의회와 실시설계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려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진도항이 물류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진도읍~진도항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확장이 절실하다. 개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빈약한 진도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도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이 밖에도 미래지향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타 지역과 차별적인 이미지를 도출해야 하고,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거점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창우 진도항 개발사업소장은 "이번 진도항 개발사업은 항만 배후지를 물류 및 관광거점지로 조성하는 대역사(大役事)라며 "연안 화물 및 여객의 안전한 수송항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진도 연안항 및 서남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식품특화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분양가 3.3㎡ 22만9200원



해남군이 식품특화단지(조감도)를 분양한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마산면 상등리 일대에 조성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내 산업시설용지 8만9427㎡ 분양 공고를 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특화단지 활성화에 나섰다. 공장건립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22만9200원이다. 내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업종은 식품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0)이다. 수도권에서 분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해남군과 투자협약체결 또는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우선이다. 해남군 생산자원을 제품 원료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

하는 업체도 우선 분양 대상이다. 군은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국제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시중 은행과 협약을 통한 저리 금융(정책)자금 알선, 적극적인 마케팅지원, 용자업체 이차 보전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분양공고에 대한 세부 일정은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에서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청사신축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지역주민 39명 추진위 구성...내달 읍·면 설명회

해남군이 청사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해남군은 최근 청사신축을 위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신축 타당성 보고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재정형편과 군민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건축과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군민여론수렴, 부지선정, 건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읍·면에서 추천받은 지역주민 등 39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내년 1월중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19세 이상 성인 인구수 대비 10%인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취합해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건립 예정부지, 설계 및 공간구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해남군 청사는 지난 2012년 2월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러, 현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다. 군은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2019년까지 450억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읍·면에서 추천받은 지역주민 등 39명으로 구성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김남주 시인 해남생가 게스트하우스 탈바꿈

郡, 리모델링 방3개 꾸며
각계 성금으로 비품 비치

고 김남주(1946~1994) 시인의 해남 생가가 게스트 하우스로 탈바꿈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에 위치한 고 김남주 시인 생가에 방 3개를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최근 마무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게스트 하우스에는 신영복 선생이 직접 쓴 '민족시인 김남주 생가' 현판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의 표구 작품이 걸렸다. 생가 게스트하우스는 시인의 시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와 머물면서 사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김남주 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에서 운영하게 된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생가 게스트하우스 전환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며, 각 계각층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비품을 구입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카페(다음카페명 '김남주 생가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요금은 1인 1박시 2만원(1인 추가시 1만원)이다. 3인 이상 가족이나 단체에서 방 1칸을 전체 이용할 때에는 5만원이며, 문인이나 예술가가 장거 기거를 원할 경우 하절기 월 20만원, 동절기 월 30만원이다. 기념사업회 회원일



해남군과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 관계자와 문인들이 최근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고 김남주 시인 생가에서 '민족시인 김남주 생가' 현판식을 갖고 있다. <해남군 제공>

경우에는 1년에 1박2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김경운 회장은 "올해 김남주 시인 타계 20주기를 맞아 생가가 게스트하우스로 전

환돼 의미가 깊다"며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만큼 시인의 정신이 길이 후대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바닷길 축제' 내년 3월 20일 개막

회동~모도리 바닷길서 나흘간 다채로운 행사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로 뽑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내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조수 간만의 차이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고군면 화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등 현장에서 열린다. 군은 내년 축제에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길러 콘텐츠를 보강하고 새벽 햇살 퍼레이드, 클로버 존 운영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

국 민족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전통 민요·민속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고유의 민속 문화 불거리와 체험 코너 등을 늘리고 국내외 홍보도 강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축제는 외국인 8만2000여명 등 53만명이 찾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지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이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주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형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육,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회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기, 아찔장 주기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